

글로벌 성명문 < 어도어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화해와 절충 제안 > / Global statement < Proposal for Reconciliation and Compromise for Peace and a New Future for Ador >

adorsuppor@gmail.com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양식을 제출하면 Google 계정과 연결된 이름, 이메일 주소 및 사진이 기록됩니다.

- 한국어 / Korean
- English / 영어
- 日本語 / 일본어
- 简体中文 / 중국어(간체)
- 繁體中文 / 중국어(번체)
- Deutsch / 독일어
- Français / 프랑스어
- Español / 에스파냐어
- Português / 포르투갈어
- Bahasa Malaysia, Indonesia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
- Tiếng Việt / 베트남어

다음

양식 지우기

Google Forms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 [양식 소유자에게 문의](#) - [서비스 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이 의심스러운가요? [보고서](#)

글로벌 성명문 < 어도어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화해와 절충 제안 > / Global statement < Proposal for Reconciliation and Compromise for Peace and a New Future for Ador >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양식을 제출하면 Google 계정과 연결된 이름, 이메일 주소 및 사진이 기록됩니다.

* 표시는 필수 질문임

한국어

. *

- 실명
- 닉네임
- 익명
- 단체

실명 또는 닉네임 또는 단체명 *

내 답변

(단체일 경우) 단체를 대표함을 보여주는 증명

지원되는 파일 1개를 업로드하세요. 최대 크기는 10 MB입니다.

⬆ 파일 추가

전화번호

내 답변

이메일 (작성 시 활동 내용 공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 답변

주소 (국가 포함 / 예시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2)

내 답변

다음은 성명문의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성명문

< 어도어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화해와 절충 제안 >

현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상호 간의 성실한 대응을 이어왔으며 어느 한쪽이 신뢰가 상실될 만한 사유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갈등을 지켜만 볼 수는 없기에 이에 어도어의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사람들이 절충안을 담은 제안서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1. 상호간 해야 할 일

양측은 ‘화해와 절충’이라는 대전제에 합의하고, 언론을 통한 입장 발표만이 아닌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실망을 준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대중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사·형사상 소송 및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공식·비공식 채널을 막론한 상호 비난 발언을 중지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2. 계약 정리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 복귀시키고, 향후 자신들이 임명한 이사를 통한 간접적 대표 해임이 시도되지 않도록 주주간계약에 방지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는 복귀와 협력을 위한 전향적 조치로서 풋옵션 대금 청구 권리를 포기하여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복귀하고, 공백기를 고려해 계약 기간이 느는 것을 감안하고 전속계약을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3. 중재위원회

합의 사항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위원 구성은 하이브 측 위원 7인(내부 3, 하이브가 선출할 어도어 이사 2, 외부 2), 민희진 전 대표 측 위원 7인(내부 2, 아티스트 대표 1, 친민희진 아티스트 팬덤

대표 2, 외부 2), 독립적 위원 5인(비민희진 아티스트 팬덤 1, 공동 지명 외부 3, 친하이브·친민희진 합의 아티스트 지지 팬덤 1)으로 합니다.

이 제안이 현재의 불행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하이브-민희진-뉴진스가 공멸이 아닌 상생의 길을 걷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명문 추가 의견 (이 의견 등을 반영해 향후 수정된 성명문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내 답변 _____

다음은 대한민국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될 탄원서입니다. 다음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탄원서

사건 : 2024가합80024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

원고 : 주식회사 하이브

피고 : 민희진 외 2인

탄원인 :

주소 :

연락처 :

2024년 4월부터 하이브와 민희진 간에 불거진 경영권 관련 갈등은 양 당사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 탄원인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장기화됨으로써 당사자들이 공멸로 가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하이브는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도어의 경영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 처했고, 민희진은 재판의 향방에 따라 추후 활동에 큰 타격이 일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와 어도어의 대표 민희진을 위해 큰 투자를 하였으며, 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 또한 어도어와 뉴진스를 위해 일하며 회사와 그룹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갈등으로 무너져가고 있으며, 탄원인은 이러한 갈등이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대화와 양보, 그리고 합의로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와 민희진이 갈등 봉합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각각 갈등의 봉합과 화해를 주장하며 각자의 합의안을 낸 바 있으며, 이제 이것들을 조합해 '진짜' 합의안을 찾을 때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합의안을 탄원합니다.



1. 상호 간에 해야 할 일

양 당사자는 '화해와 절충'이라는 대전제에 합의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한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직접 대화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간에 실망을 준 점을 인정하며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형사상 모든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갈등을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불안이 아닌 신뢰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계약 정리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 복귀시키고, 임명 이사들을 통한 간접적 대표 해임이 시도되지 않도록 주주간계약에 '대표 해임 불가'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에 따른 대표직 안정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동시에 이사회 구조는 하이브가 우위를 유지하는 체제를 그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곧 하이브 측이 가장 우려하는 독립 시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이며,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해법입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전향적 조치로 풋옵션 대금 청구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협력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뉴진스 역시 어도어 소속으로 복귀하고 이와 동시에 공백기를 보완하는 전속계약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3. 중재위원회 설치

합의사항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각각 추천한 위원과 중립적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균형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불신이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갈등 당사자들 간 실질적인 협의와 화해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기존의 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위해 합의안을 탄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우려를 해소하는 절충적 해법입니다.

이에 재판부께서 본 사안의 복잡한 법리뿐 아니라 당사자들에 미칠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하시어, 양 당사자가 공멸이 아닌 공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 탄원서의 취지와 제안된 내용이 법원을 통해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각 주체가 이를 참고해 상호 이해와 존중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탄원서가 하이브와 민희진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서

사건 : 2024가합113399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원고 : 주식회사 어도어

피고 : 김민지 외 4인

탄원인 :

주소 :

연락처 :

회사 어도어는 2021년 11월 설립되어 모회사 하이브의 인적·물적 지원과 설립자 민희진의 기획 및 프로듀싱 역량 아래 성장해왔으며, 어도어에서 데뷔한 그룹 뉴진스는 이러한 배경 아래 국내외에서 K-POP을 대표하는 아이돌 중 하나로서 성장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경영권 관련 갈등은 회사와 가수의 성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도어의 경영권 문제와 전속계약 해지는 별개라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피고들의 전속계약 일방 해지 명분이 어도어의 경영권과 연계되어있는 만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어도어와 뉴진스를 위해 큰 투자를 하였으며, 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 또한 어도어와 뉴진스를 위해 일하며 회사와 그룹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갈등으로 무너져가고 있으며, 탄원인은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어야 어도어와 뉴진스의 경영, 음악 활동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뉴진스와 민희진이 갈등 봉합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각각 갈등의 봉합과 화해를 주장하며 각자의 합의안을 낸 바 있으며, 이제 이것들을 조합해 ‘진짜’ 합의안을 찾을 때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합의안을 탄원합니다.

1. 상호 간에 해야 할 일

양 당사자는 ‘화해와 절충’이라는 대전제에 합의해야 합니다. 언론을 통한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직접 대화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간에 실망을 준 점을 인정하며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형사상 모든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갈등을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불안이 아닌 신뢰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계약 정리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 복귀시키고, 임명 이사들을 통한 간접적 대표 해임이 시도되지 않도록 주주간계약에 ‘대표 해임 불가’ 조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에 따른 대표직 안정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동시에 이사회 구조는 하이브가 우위를 유지하는 체제를 그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곧 하이브 측이 가장 우려하는 독립 시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이며,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해법입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전향적 조치로 풋옵션 대금 청구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협력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뉴진스 역시 어도어 소속으로 복귀하고 이와 동시에 공백기를 보완하는 전속계약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3. 중재위원회 설치

합의사항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각각 추천한 위원과 중립적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균형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불신이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갈등 당사자들 간 실질적인 협의와 화해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기존의 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위해 합의안을 탄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우려를 해소하는 절충적 해법입니다.

이에 재판부께서 본 사안의 복잡한 법리뿐 아니라 당사자들에 미칠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하시어, 양 당사자가 공멸이 아닌 공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 탄원서의 취지와 제안된 내용이 법원을 통해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각 주체가 이를 참고해 상호 이해와 존중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탄원서가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원서에 덧붙이고 싶은 말 (이 의견은 응답자 본인의 탄원서에만 반영됩니다)

내 답변

뒤로

다음

양식 지우기

Google Forms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 양식 소유자에게 문의 - 서비스 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이 의심스러운가요? [보고서](#)

Google 설문지



